

기고 불자, '4월 총선' 이렇게 맞이하자 ③

불교의 교세에 비하여 형편없이 낮게 평가되는 것이 불교의 정치적인 힘이다. 그만큼 불자들은 정치적인 의식이 희박하고,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직적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불교도를 건설한다는 구호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진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불교도로 바꾸어 나가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일으키지 못한 우리 불교의 엄보인 셈이다.

하루아침에 이 엄보를 찬탈할 수 없는 일이다. 아니 하루아침에 찬탈하려는 생각을 먹으면 오히려 그 엄보가 무섭게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을 깊이 경계해야 한다. 불자인 정치인을 무조건 밀어내서 당선시키지는

“
“우리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획일적인 필요는 없으나
뜻을 함께하려는 불자들끼리
연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실정치를 바꾸는 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

“불국토 건설에 적합한가, 먼저 살피라”

식의 발상은 그래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불교가 가진 관용성과 불평부당성이라는 큰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 된다.
결국 차분하게 기초부터, 원로부터 시작하는 길 밖에 없다. 우리 불자가 그리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현실에 불국토를 이루어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물어 나가면서, 그러한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데 부합되는 정치인을 찾아 나가고 또 만들어 나가는 길 밖에 없다는 말이다. 기복 일변도, 그랄지 않으면 수평 일변도로 나가면 불교의 모습에서 어떻게 감지하기 높은 정치의식을 배울 수 있느냐는 말인가? 올바른 정치자랄로 불국토 건설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 시급한 것이다.
우선 불자임을 떠나서, 일반 시민

으로서 이상적인 정치인은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안목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정치인은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정치인의 도덕적 품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도덕적 품성이 좀 부족한 경우는 어떤 쪽을 중시해야 하는가? 이러한 기준들을 생각해 보고, 나름대로 잣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준들을 정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한 개인 불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애초에 정치라는 것은 연대와 조직이 필요하다. 불자들이 불국토 건설이라는 사명을 현실 정치와 연결시키는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획일적인 필요는 없으나 계속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뜻을 함께하는 불자들끼리의 연대가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실 정치를 바꾸는 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성급한 생각은 금물이다.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건강한 정치의식이라는 기반 위에 불교적 정신에 입각한 정치적 이상을 추구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의 건강한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시켜 불국토 건설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긴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개인 불자의 차원을 넘어서 불교계 지도층 인사, 나아가 종단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적당한 선을 지키는 건재 아래, 정책 정당성에 대한 건강한 토론의 장을 열어 불자들의 정치적 의식을 계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이야기에 불어 현실적으로 불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 바로 종교적 관행성에 대한 검증이다. 불자 정치인인 불자 정치인인 종교적 관행성을 강하게 지닌 이에 대해서는 엄한 심판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선거에서야 물론 다 공정을 내세우겠지만, 그 이전의 행태까지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인으로서 종교적 불평부당성을 지니는 것은 어떤 정치적 능력이나 품성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이번 선거를 통해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성태웅
우리는 선우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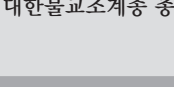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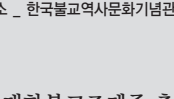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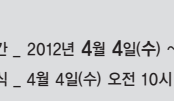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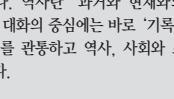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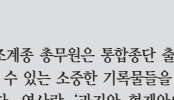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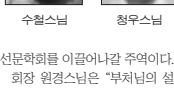
“자유·평등 통섭하는 세상 구현”

시 쓰는 스님들
‘선문학회’ 출범

“절제받은 요란하고 무성한 시대상을 마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스님들이 머뭇머뭇 뜻을 모아 문학활동을 통해서 불교의 참된 가르침을 민중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지난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 선문학회(회장 원경스님, 심곡암주지) 발족식에서 고문 해민스님(전 아산 인취사 주지)은 “자유와 평등을 통섭하는 세상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문학회 동인은 시를 쓰는 스님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민스님을 비롯해, 선문학회장인 원경스님, 구달스님(양평 예봉사 주지), 성민스님(홍천 백락사 주지), 행담스님(삼척 영은사 주지), 수산스님(양평 우정사 주지), 수철스님(제주 수보리선원 주지), 청우스님(영월 범방사 주지) 등이 주인공들이다.

선문학회는 이날 선문학 제1집(존재의 꽃)을 출간,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책을 엮은 이종철(범명 선각)은 선문학의 발원지와 선문학의 지도교수 엄정섭 관동대 명예교수도



은 시적 원음으로써 경의 말씀이 바탕되어있음을 새삼 알 수 있으나, 오히려 불공덕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문학회 출범은 각자 각지에서 수행하고 포교에 임해온 스님들이 믿음과 공간의 마음으로 탁마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정섭 교수도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문학을 축으로 선문학을 묶어 세상에 내놓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았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라며 “인연의 소중함을 깊이 헤아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지극선(至極善)을 위한 일임으로 뜻을 함께한다면 우리 문학사에 시적 토양과 따뜻한 정신기후를 조성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선문학회 동인이 된 수산스님은 “작막하고 정치적인 세상을 벗어나는 청량한 바람이자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행담스님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판치는 세상에서 조금 느리게 나를 반조하고 되돌아보는 ‘화두’를 우리 스님들이 문학을 통해 전해주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선으로가는 길에 제정한 제1회 선경문학상에 원경스님의 시 ‘그대 꽃처럼’과 3권이 선정돼 시상식을 가졌다.

하정은 기자 hstn77@kbs.com



지난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경허스님 선사화전 개막식이 열렸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오른쪽)과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경허스님의 친필이 실린 병풍을 보고 있다. 김명주 기자

“승고한 기운, 지표로 삼자” 경허스님 선사화전 개막

“오늘 천경하게 된 경허선사의 친필을 통해 조계종의 자존감을 지켜낸 선사의 승고한 기운을 마음으로 받들어 삶의 지표로 삼고, 깊은 유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봉행된 ‘경허스님 열반 100주년 기념 선사화전 개막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경허스님의 수행과 구도의 삶은 조계종의 전신을 세운 원동력이자 우리 후손들이 살을 되돌아보게 하는 큰 뜻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허선사열반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 지은스님(덕숭총림 수덕사 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경허선사의 출현은 이 국토에 불연(佛緣)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무애인으로, 대적보살로서,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경허대선사를 추모하는 제반의 추모사업 중 처음으로 장을 여는 선사화전”에 사부대중들의 수회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선사화전에는 경허스님과 역대

고승들의 친필, 선필 선화를 공개하고, 경허스님을 존경하는 선사화가 70여명이 동참해 300여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선사화전 개막전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과 중앙총회의장 보선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현을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 제17교구 본사 금강사 주지 원행스님 등도 참석했다.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펼쳐진다.

하정은 기자

하정은 기자

캄보디아 오지예 교육 학용품 전달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불교국가 캄보디아 오지마을에 어린 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가 불자단체가 자비나눔 활동을 펼쳤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대표 남지심)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북쪽 국경오지마을인 오다르민 제이주 텡뎃디봉 마을을 방문해 텡뎃디봉 초등학교 전교생 480명에게 교복과 학용품 등을 지원했다. 또 마을에 세워진 우물 14개를 둘러보고, 프놈펜에 거주하는 대학생 5명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 연말까지 15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생들도 구성된 봉사단을 꾸려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단체는 재가불자들로 구성된 축구동호회 ‘FC 뽀따(회장 이득재)’가 지원한 축구용품도 함께 전달했다. FC뽀다는 스포츠를 통해 자비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축구부에 유니폼과 축구공 14개, 공기 펌프 두 대를 기증했다. 오시한 사무국장은 “현재 마을에 중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고급 교육까지 마쳐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칠겠다”고 말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지난 2009년 11월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광대 총남대 명예교수,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 소심가 남지심 작가 등 11명의 재가불자들이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의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창립했다. 현재 총3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다영 기자

“종교인교세 지체발라”

종자연 논평 발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교인교세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은 논평을 발표했다.

종자연은 지난 23일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종교의 공익적 활동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종교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강화하고, 종교인 기도 하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 기록물 전시회

— 종단이 걸어온 변화와 새신의 길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이하여 통합종단 50년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물들을 종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전시의 장을 마련 하였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대화의 중심에는 바로 ‘기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시대를 관통하고 역사, 사회와 소통하며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전시기간 _ 2012년 4월 4일(수) ~ 10일(화)
- 개 막 식 _ 4월 4일(수) 오전 10시
- 전시장소 _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불교역사자료모으기운동

대한 불교의 기록, 불교의 역사입니다

소중한 기록을 영구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이 지원 합니다. 관리가 어려운 개인 소장품을 최첨단 중앙기록관 시설을 통해 미래의 불교유산으로 보존하며 대중들에 대해 특별전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람과 큰 스님의 유언에 남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구전승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문서기록〉 고승글씨, 필적, 육필본과 편지, 일기, 전법계, 인가증, 포상증, 졸업장, 계첩, 전적, 사신첩서, 기타 서류(사신, 녹음테이프), 〈크스님유물 및 박물관〉 〈불초관련 사진과 기록〉 등...

● 문의: 중앙기록관 (02)2011-1712